**연중 제18주일(2018년 8월 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일을 듣거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자렛이라는 시골 마을, 별로 알려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촌구석에서 목수가 생업이었던 한 청년 설교가가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았던, 삶의 별다른 희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삶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꾼다는 것, 희망을 갖는 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곳곳에서 몰려듭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늦은 오후, 갈릴래아 호수가의 외딴 들판에 모여 앉아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크게 한 턱 쏜겁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지난주 복음이었습니다. 장정만 오천 명이었다고 하죠. 이 오 천이라는 수는 아주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배불리 먹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 합니다. 예수님을 영웅처럼 받들고,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물위를 걸어서,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파르나움으로 돌아 간 겁니다.

당시 가파르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고,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파르다움은 갈릴래아 호수가에 있었던 도시로 당시에 유동 인구가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 활동을 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활동의 본거지가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가 되었던 베드로의 집 그 자리에 큰 기념 성당이 서 있습니다.

호수 반대편에 남아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왔던 배가 없어진 것을 알고,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구름 같은 사람들이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오늘 복음은 그 가파르나움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호수 저편 외딴 곳에서 엄청나게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그 기억 때문에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온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하늘 나라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주 의미 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훤히 꿰뚫어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 영원한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제발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또 아주 엄청납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지금 교회의 역사가 되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때만해도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최후의 만찬때,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고 피다”하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날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고,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종종 잊고 살때가 많습니다. 삶의 우선 순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이런 저런 일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살다 보니까, 혹은 겉모습만 집착하고 살고, 고집부리고, 자존심 챙기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의 정말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들, 부와 명예, 재산, 권력, 자존심,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릴 부질없는 것들에 인생 다 바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다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바쁘게는 사는데, 세월은 덧없이 빠르게만 지나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이 다음에 세상 떠날때가 되면 인생 허무해 지고 슬퍼지고 쓸쓸해 집니다.

내 삶의 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슴 깊은 곳을 한대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을 자들아!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사십니까? 썩어 없어질 의미 없는 것에 삶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는 보다 값진 것을 찾기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입니다.